



# 광남일보



**'창립 50돌' 광주세무사회 13일 기념행사**  
1세무사 1나눔 캠페인·50년사 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서 선비문화 체험"**  
장성군, 14일 필암서원 선비축제 개최

**완도 치유페스티벌, 만족도 '우수'**  
여행 경비 저감 등 이용자 호평

**아마골퍼 168명 '프로급' 실력·매너 뽐냈다**  
제11회 DK·광남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시상식

조간 제7861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윤력 5월 17일)

## 기후에너지부, 최적지 전남이 답이다

김영록 도지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 공식화  
재생에너지 1번지...기후위기·에너지 전환 대응 가능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밀집...정책 시너지 효과 기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남도가 이재명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발맞춰 해당 부처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에 나섰다. 국내 재생에너지 중심지로서의 입지와 역량,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기후에너지 정책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복안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임정문을 통해 "기후위기가 미래세대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시기에 대통령께서 밝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도로서의 역량을 갖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기후에너지부 유치의 최적 입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후·에너지 정책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분절된 책임 구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인허가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

교통부, 지자체 등 여러 주체가 중첩적으로 관여하면서 기업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주민은 소외되며, 사업 추진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기후에너지부가 이러한 구조를 통합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전남은 기후에너지부의 성패를 좌우할 실행 거점이자 최적 입지"라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직 설계에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전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국가정책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1176GW, 전국 대비 16%)를 자랑하며, 이미 국내 최대 태양광단지과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영광, 해남, 완도 등 지역 곳곳에서는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발전사업과 이익공유제 도입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2면에 계속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30도 더위...13일 비

12일 광주·전남지역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1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광주·전남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이르면서 덥겠다. 13일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비는 14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한편, 12일 오전부터 제주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13일 오전 전남·전북지역 등으로 확대되겠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 코스피 2900 안착...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국거래소 찾은 이재명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11일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하며 29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35.19p(1.23%) 오른 2907.04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코스피는 지난 2일부터 6거래일 연속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5.47p(0.54%) 오른 2887.32로 출발해 장 초반 2900선을 돌파했다. 장 중반 숏돌리기 구간이 나오기도 했지만 후반 들어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며 종가 기준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약 3년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은 2378조 921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해 7월 11일의 2363조 6270억원이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던 공약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주식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재차 밝혀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면에 계속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장·차관 국민추천제 열기 후끈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해수부장관 신우철 군수 추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해수부 장관으로 신우철 안도군수를 추천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이끌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시작된 가운데 지역 출신 인사들의 추천이 눈에 띈다.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의사 출신으로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 정 전 청장은 '코로나 19' 환자 발생 이후 2년여간 정부의 방역 대응을 총괄하며 추가 감염 봉쇄하는 등 'K방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정가로 평가받았다. 특히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의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계정),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들의 추천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다. 고강도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는 박은정, 김용민 의원의 추천이 많았으며, 임은정(검찰총장), 최강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인기

### 법무 박은정·검찰총장 임은정·공수처장 최강욱 첫날 1만1000건 돌파...대통령실 16일까지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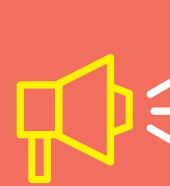
료대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의료개혁을 이끌 수장이라며 적임자로 꼽고 있다. 신우철 안도군수는 군민과 수산단체 전문가들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추천되고 있다. 신 군수는 전남도 초대 해양수산과 학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4년부터 안도군수로 내리 3선에 성공한 인물로, 지역 단체장 중 드문 수산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양과 수산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우철 군수가 적임자라며 추천이 이어졌다. 장·차관이나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 임명 가능한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추천제가 시행된 10일과 11일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

후보군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통일부장관에는 5선의 정동영 의원 등의 추천이 많았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 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참여해 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는 16일까지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지속 · 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저렴한 광고비

**이번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